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수빅베이 지역에 위치한 Subic Language Center에서 파견기간동안 생활을 했다. 학교시설은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 강의실과 기숙사, 그리고 식당까지 한 건물에 있어서 편했다. 시내에서 기숙사 까지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가 걸리고, 걸어서 기숙사에서 시내까지는 갈 수 없는 거리이다.
수업	수업은 고등학교 수업처럼 50분의 수업시간, 10분의 쉬는 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수업시작은 아침 8시부터 시작되며, 오전수업 4시간(1대1 2시간, 그룹수업 2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오후수업 4시간(1대1 2시간, 그룹수업 2시간) 이렇게 진행되며 정규수업은 오후 4시 50분에 수업이 끝난다. 처음에 레벨테스트를 하고서 등급에 맞춰서 5명씩 그룹이 묶인다. 그룹수업에서는 토익스피킹 수업과 멀티미디어 수업을 하게 되며, 1대1 수업은 리딩수업 2시간, 보카수업 2시간을 하며 선생님들과 1대1 수업이 진행이 된다. 처음에는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서로 파악이 끝나서 재미있게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Activity	첫 번째 활동 : 수빅투어 한 달 동안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마트들도 구경하고, 환전도 하고, 유심도 구입했다. 현지인 선생님과 함께 다녀서 안전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액티비티였다. 마지막으로 수빅베이를 갔다가 다 같이 비치 앞에서 저녁을 먹었다. 두 번째 활동 : 클락SM쇼핑몰 원래 리조트 투어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변경되었다. 클락 SM 쇼핑몰은 남자들에게는 큰 흥미를 느끼게 하지 못한 활동이었다. 여자들은 쇼핑하고 구경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한테는 약간 지루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수빅에 있는 쇼핑몰 보다는 할인하는 품목도 많았고, 볼거리가 많았다.

	세 번째 활동 : 요트투어 1월1일 새해에 한 활동이다. 총 2개의 요트에 나뉘어서 탔는데 보통 MMC그룹 위주로 몰려서 탔다. 요트를 타고서 한 30분 정도 나가서 정박을 한 다음에 바다수영을 즐겼다. 네 번째 활동 : 리조트 투어 마지막으로 리조트 수영장은 이미 다 친해진 상태에서 수영장을 가니까 되게 좋았었다. 또한 리조트 수영장뿐만 아니라 리조트 앞에 있는 바다 액티비티를 본인 돈을 지불하면서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보통 수업이 끝나면 5시가 넘어가서 이때부터 밖에서 활동하기에는 딱 좋았다. 건기라서 그런지 단지 해만 없어도 시원하게 느껴졌다. 낮에는 보통 32도정도 까지 올라가지만 주말 빼고 낮에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더운 것을 느끼지 못했다. 모든 건물들이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추위를 잘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걸움이 필요하다.
안전	매 시간 무장을 한 가드들이 기숙사를 지키고 있으며, 수빅지역과 클락, 올롱가포지역의 큰 건물들은 무장을 한 가드들이 지키고 있으며 소지품 검사를 매번 하여 총기와 테러로부터 안전하다. 또한 매일 같이 점호를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어서 좋았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다들 3인1실을 사용했지만, 남자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나는 2인1실을 사용했다. 기숙사는 만족스러웠다. 매주 월, 수, 금요일에 테크니컬 관리자가 청소를 해주시고, 또한 빨래도 월, 수, 금요일에 빨래실에 맡기면 다음날에 빨래가 완료되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또한 생활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어서 좋았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다들 처음에는 아침식사를 많이 먹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아침을 먹는 사람이 확 줄어든다. 아침은 간단하게 빵과 샐러드위주로 나오고, 점심과 저녁은 한식위주로 나오며 내 입맛에는 맛있었다.
교통	기숙사에서 수빅시내로 나갈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FB이다. FB는 14페소로 저렴하며 약 10~15분 정도면 시내로 나갈 수 있다. 보통 수업이 끝나

	는 시간에 맞춰서 FB가 기숙사 앞을 지나가 잡아서 타고 나오면 된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FB가 기숙사 앞을 잘 안지나 다녀서 가드 분들에게 택시나 FB를 불러달라고 말을 해야 한다. FB를 부르게 되면 인당 14페소가 아니라 1 FB당 300페소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수빅베이에서 기숙사로 들어오려면 FB나 택시를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통금시간 가까이에 FB가 잘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택시는 보통 4명에 200페소정도에 이용 가능하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74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060	
환전	561,000	500달러 환전
합계	1,332,060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딱히 없었다. OT 때부터 준비해야할 사항을 다 알려주시고, 수시로 카카오톡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셨다. 수업중에 MMC 수업이 있는데 미리 편집프로그램이나 음원추출 프로그램같은 것은 다운받아서 가면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그냥 한국에서 공부 하는 것 보다는 좋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에 지원을 했다. 하지만 합격을 하고 난 후 출국 하기 직전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크게 들었다. 번역기 없이는 말도 못하는 영어실력인데 가서 어떤 식으로 말하지? 수업진행이 아예 불가능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두려운 마음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었다. 처음부터 수업이 재미있지는 않았었다. 선생님들이 말하는 질문들은 못 알아듣는 것 투성이었고, 알아듣는다고 해도 내가 말을 못하겠어서 너무 답답했었다. 그래도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전보다는 수월하게 알아 들을 수 있어서 수업이 재미있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말도 못 걸었는데, 매일 수업 끝나고서 나가서 비록 일상영어지만 외국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을 느낄
--

수 있었고, 내가 영어로 전화예약을 해냈다는 것이 신기했었다. 4주라는 기간으로 영어 실력이 갑자기 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영어로 말하고 알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지금 이 소감문을 쓰는 시점이 아직 연수를 다녀 온 지 일주일도 채 안된 시점이라서 모든 것이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던 일로 생각되는 것 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생각만 유지된다면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흥미를 잃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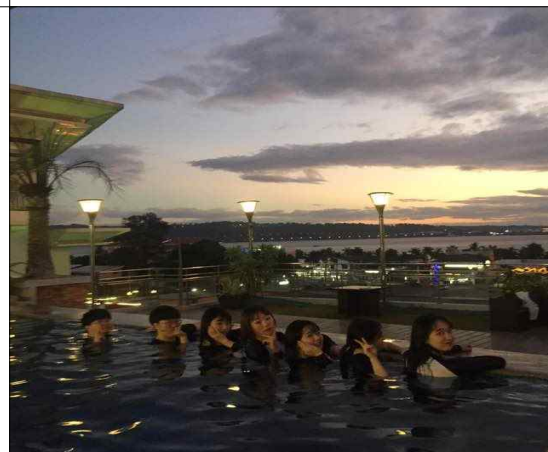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수빅 베이



삭스 데이



1월 1일 기념	호텔 수영장
	
올로	리조트 해변